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15 포천향토사연구소 소장 이석구

“과거사 보다는 현대사를 정리하고 싶다”

문화예술전문가와 함께 읍면동 순회여행 추진해야

포천향토사연구소는 1986년 포천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세워졌다. 초대 리호중 소장이 13년 동안 재직하면서 다양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펼쳤다.

향토사발간과 문화지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포천향토사 연구소는 포천 관내 읍면동에 각 2명씩 위원을 임명해 활동하고 있다.

제2대 이석구(72·사진)소장은 “포천향토사 연구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과거의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예를 들자면 이 고장의 인물로 알려진 오치성, 이한동, 김용재씨 등 정치인물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미리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산이 중요하다.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이 마련된다면 당장 시작하고 싶다. 경영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자 하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정리해야 된다.

이 소장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지금은 서민의 시대, 민주시대다. 따라서 사치버스를 빌려 타고 각종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고 싶다. 한 곳에 일주일씩 머무르면서 명장하고 만나고 그곳의 명소도 찾아보고 역사도 캐보고 싶다. 그래서 문인은 글로 남기고 화가는 그림으로 남기고 음악가는 작곡을 하고 연극인은 극을 만들고 무용인은 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사진작가는 동네 구석구석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포천향토사연구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장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지금은 서민의 시대, 민주시대다. 따라서 사치버스를 빌려 타고 각종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고 싶다. 한 곳에 일주일씩 머무르면서 명장하고 만나고 그곳의 명소도 찾아보고 역사도 캐보고 싶다. 그래서 문인은 글로 남기고 화가는 그림으로 남기고 음악가는 작곡을 하고 연극인은 극을 만들고 무용인은 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사진작가는 동네 구석구석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포천향토사연구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14개 읍면동을 모두 순회하는데 3~4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소장은 이렇게 대화로는 잘 이야기 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이 부족해서인지 잘 이해를 못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이 소장은 공식석상에서는 포천향토사연구소를 지원해 달라고 소망을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너무 열악한 실정이라며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포천향토사 연구위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소장은 일상에 바쁘더라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소 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과거만 담부했지 이렇다할 보상을 못한 점이 부끄럽다.

이 소장은 선비의 고장 약진하는 포천을 발간한 의도에 대해서 포천을 빠르게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했으며 포천군지의 내용을이나 규모가 방대해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약할 여야 이해하기 쉽게 편집했다고 한다.

약진하는 포천의 주요 목차를 보면 제1장 우리고장의 역사, 제2장 우리고장의 자연환경, 제3장 우리고장의 삶과 문화, 제4장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 제5장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제6장 관광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로 보면 학자로 최치원, 양사언, 김석문, 이석구, 김평목, 이혜조, 정치가로는 유순, 김수동, 박순, 유전, 황정욱, 김권, 이항복, 서성, 이덕형, 이상길, 이경여, 조정, 인평대군, 정만석, 충신으로는 유응부, 권준, 조득남, 독립운동가로는 최익현, 이종일, 권동진, 박동완, 효자로는 유인선, 신급, 유홍서, 유찬서 형제, 최천극, 오백주 등을 소개했다.

다양한 집필활동을 통해 포천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온 포천향토사연구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포천시의 관심과 애정어린 예산지원과 포천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포천시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포천향토사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향토문화 유적사료집 발간(1991.6.30) ▶독립운동사 발간(1991.4.13) ▶지명유래집 발간(1993.12.20) ▶포천의 사원 발간(1994.12.24) ▶포천의 암각문 발간(1997.2.15) ▶포천의 사.단.정려 발간(1997.10.20) ▶포천금석문대관 발간(1998.12.20) ▶포천의 인물지 발간(2000) ▶약진하는 포천 발간(2002.1) ▶포천역사문화개관 발간(2002.6) ▶포천의 문화유산 발간(2002.12.30) ▶포천의 인물지 발간(2003.12.31) ▶향토사료 총람(상)발간(2004.12.30) ▶향토사료 총람(하)발간(2005.12.30) ▶포천의 지명유래(중보판) 발간(2006.12.20)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석구 포천향토사연구소 소장

韓國의 선비정신 · 67

송강(松岡) 조사수(趙士秀) “그런 일에는 몸을 굽히지 않는다”



리호중 포천한시사 대표

대사헌 조사수는 성품이 굳세고 절개가 있었다. 그가 출근하는 길 옆에 진복창의 집이 있었는데 당시 진복창은 윤원형의 심복으로 을사사화 때 사림을 숙청하는데 앞장섰다. 그리하여 많은 선비들로부터 ‘독사(毒死)’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그는 자기를 벼슬에 추천해준 구수담까지 역적으로 몰아 사약을 받게 하는 등 윤원형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 옥사를 일으켜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진복창의 위세를 두려워한 대신들이 늘 허리를 굽히고 그를 대하였다. 하지만 조사수는 3년동안 진복창의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한번도 집에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진복창이 그 소리를 듣고 아전을 문 밖으로 내보내 무릇 자신의 집 앞으로 지나면서도 들리지 않는 자의 이름을 적어 올리게 하였다. 조사수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는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어의동(於義洞) 쪽 길로 다녔다. 진복창이 또 이 사실을 알고는 어의동에 사람을 배치하여 탐지하게 하였다.

하지만 조사수는 끝내 진복창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는 소인 보기를 마치 몸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었다.

명종때 심연원(沈演源)은 영의정(領議政)으로 있었는데 조사수는 지경(地境)으로 함께 조정에 입시하게 되었다. 그때 조사수가 대신들의 가족이 지나칠 만큼 크다고 논하였다.

“영의정 심연원에게는 첩이 하나 있는데 홍담(洪澐)이 병조판서

나 있습니다. 그 첩이 지금 새 집을 짓고 있는데 몹시 사치스러울 뿐 아니라 집에 딸린 행랑채가 너무 큼니다. 더구나 지붕에 단청까지 그랬으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입금 앞에서 무안을 당하자 심연원은 등에 땀이 나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였다. 마침내 입금이 심연원에게 불었다.

“지금 한 말이 맞는가?” 그러나 심연원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조사수의 말이 맞습니다. 신의 불찰이었습니다.”

경연에서 물러나오자 심연원이 조사수를 불러 말했다. “그대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 잘못이 더욱 클 뻔하였소” 그후 심연원은 단청을 모두 지워버리고 첩의 집 행랑채를 깊이 잠근 채 손님을 맞지 못하게 하고 작은 사랑채에 서만 손님을 맞았다.

훗날 심연원은 조사수를 추천하여 이조판서에 오르게 하였다. 심연원은 조사수의 감직함을 인정하였고, 조사수는 감직함을 지켰으니 모두 공경할 만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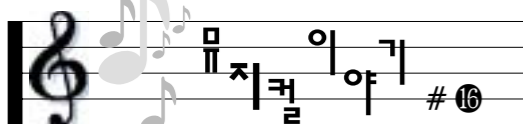
어느해 홍담(洪澐)이 병조판서

에 임명되자 조사수가 대간들에게 말했다. “홍담은 나의 친한 벗입니다. 그러나 홍담의 재능을 보건대 이조판서로는 적임자이나 병조판서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주장하여 직책을 바꾸었다. 그리고 곧 들어가 홍담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내가 주장한 일인데. 미안하네.” 그 말을 들은 홍담이 말했다. “내가 병조판서 자리를 더럽힌다는 말은 결코 견딜 수 없는 모욕이네. 하지만 돌아보면 그대가 조정에서 논의를 올바르게 펴고 있으니 재능을 믿을 뿐 아무런 근심도 없네.”

중종 때 청백리를 뽑는데 조정에 청문(淸門), 예문(例門), 탁문(濶門)을 세웠다. 즉 신하들을 청렴한 사람, 보통 사람, 청렴하지 못한 사람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자 자신에게 합당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예문으로 들어갔는데 조사수만 청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조사수(趙士秀) 1502년(연산군8)~1558년(명종 13)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계임(季任). 호는 송강(松岡)이다. 1531년(중종 26)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정언, 교리, 교덕 등을 지냈다. 그후 제주목사, 이조참판 등을 거쳐 대사성, 대사헌, 경상도 관찰사 등을 두루 지냈으며 다시 이조·호조·형조·공조의 관서를 거쳐 지중추부사·좌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뮤지컬 음악의 보편적인 구성

일종의 총체적인 뮤지컬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즐겁고 다소 가벼운 공연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작과정에 있어서 일반 연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구조가 복잡하다. 그것은 드라마, 음악, 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양 상을 이루어야 하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발하고 스펙터클한 무대장치와 화려한 의상 이외에도 때로는 특수효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은 정극(일반적인 대사 연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 백억 원 대의 엄청난 제작비와 인력 그리고 기업화된 기획력이 투입된다고 한다. 쇼비즈니스(Show Business)라는 말을 듣고 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정통연극은 극의 기본흐름인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의 단계로 사건이 진행된다. 하지만 뮤지컬은 여기에 음악과 춤이 더해져 마치 오페라처럼 음악적인 진행이 사건을 이끌어갈 때도 있으며 춤이 진행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때도 있다. 공연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연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양식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까지 뮤지컬 코미디는 지극히 희극적이며 낭만적인 그렇지만 허술한 대본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신 재미있고 재미있는 노래, 주연배우의 스타성 그리고 화려한 앙상블 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프닝을 포함하여 15곡에서 20곡 정도로 구성된 전형적인 2막 대본이 일반적인 구조였다. 1막과 2막 사이에 피날레가 연주되었으며 독창과 듀엣, 중창 등 그리고 단 한 두 소절의 노래도 포함되는 오레타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물론 현대 뮤지컬도 이러한 음악적인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뮤지컬의 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뮤지컬의 음악적 구성도 자유롭고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최근 뮤지컬은 록과 재즈 등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랩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악들도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라틴음악 들뿐만 아니라 뮤지컬 (우모자)와 (라이온 킹)처럼 아프리카 민속음악들도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브레이크 맨스'를 추는 사람(Break Beat-Boy)의 의미를 지닌 비보이(B-Boy)를 뮤지컬 무대에도 등장시켜 퓨전화된 상품으로 뮤지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통적인 개념의 뮤지컬 코미디 공연에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일반적인 논리를 예로 든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파격적인 요소가 나오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1. 서곡(Overture): 오페라처럼 극이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또한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짧게 인트로 만이 연주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2. 오프닝넘버(Opening Number): 서곡이 끝난 후 연주되는 곡으로 앙상블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진다. 활력에 넘치고 관객들이 극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3. 엑스포지션 넘버(Exposition Number): 극의 배경과 상황설명을 해주는 제시곡이다. 물론 노래를 통해 전달되며 관객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화한 가사 전달이 요구된다.

4. 프로덕션 넘버(Production Number):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로 대체로 1막의 중간 부분이나 1막의 끝에 나오는 곡이다. 주·조연, 앙상블 및 댄서 등 뮤지컬의 각 요소들이 모두 함께 하며 화려하고 활기차다.

5. 쇼 스톱퍼(Show Stopper): 뮤지컬에서 일종의 기본 전환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보드빌이나 뮤지컬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극의 흐름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재미있는 노래나 연기를 삽입시켜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데 박수나 환호로 인하여 뮤지컬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6. 아리아(Aria):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뮤지컬에서 남녀 주인공이 각자 사랑의 환희나 슬픔 등을 노래하며, 일반적으로 극의 내용이 절정에 달할 때 나오는 노래이다. 작곡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노래이며 음반의 판매와도 직결되는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이 수천만장 이상이 팔렸다는 웨버의 '메모리(Memory)'나 '던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 등이 유명한 예이다.

7. 반복(Reprise)과 커튼 콜(Curtain Call): 대부분 변주로 이루어지는 반복(Reprise)은 극적 상황의 변화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극적 순간에 나온다. 반복이 수반되는 커튼 콜은 공연이 모두 끝난 뒤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며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는 의미에서 극중의 중요 아리아나 합창곡 등을 다시 부르거나 편집하여 메들리로 보여주는 피날레이다.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우도 많다.

1. 서곡(Overture): 오페라처럼 극이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또한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짧게 인트로 만이 연주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2. 오프닝넘버(Opening Number): 서곡이 끝난 후 연주되는 곡으로 앙상블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진다. 활력에 넘치고 관객들이 극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3. 엑스포지션 넘버(Exposition Number): 극의 배경과 상황설명을 해주는 제시곡이다. 물론 노래를 통해 전달되며 관객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화한 가사 전달이 요구된다.

4. 프로덕션 넘버(Production Number):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로 대체로 1막의 중간 부분이나 1막의 끝에 나오는 곡이다. 주·조연, 앙상블 및 댄서 등 뮤지컬의 각 요소들이 모두 함께 하며 화려하고 활기차다.

5. 쇼 스톱퍼(Show Stopper): 뮤지컬에서 일종의 기본 전환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보드빌이나 뮤지컬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극의 흐름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재미있는 노래나 연기를 삽입시켜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데 박수나 환호로 인하여 뮤지컬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6. 아리아(Aria):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뮤지컬에서 남녀 주인공이 각자 사랑의 환희나 슬픔 등을 노래하며, 일반적으로 극의 내용이 절정에 달할 때 나오는 노래이다. 작곡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노래이며 음반의 판매와도 직결되는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이 수천만장 이상이 팔렸다는 웨버의 '메모리(Memory)'나 '던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 등이 유명한 예이다.

7. 반복(Reprise)과 커튼 콜(Curtain Call): 대부분 변주로 이루어지는 반복(Reprise)은 극적 상황의 변화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극적 순간에 나온다. 반복이 수반되는 커튼 콜은 공연이 모두 끝난 뒤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며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는 의미에서 극중의 중요 아리아나 합창곡 등을 다시 부르거나 편집하여 메들리로 보여주는 피날레이다.

이번에 출간된 시집 '아직도 못다 부른 노래'는 고희(古稀)기념 시집이자 '서늘 하늘의 눈부신 노을의 노래'라고 하는 게 좋은 대담 일 것이다. 문단 27년의 중진담 게 무게 있는 250편의 시가 '고

여 뮤지컬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6. 아리아(Aria): 오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뮤지컬에서 남녀 주인공이 각자 사랑의 환희나 슬픔 등을 노래하며, 일반적으로 극의 내용이 절정에 달할 때 나오는 노래이다. 작곡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노래이며 음반의 판매와도 직결되는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이 수천만장 이상이 팔렸다는 웨버의 '메모리(Memory)'나 '던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 등이 유명한 예이다.

7. 반복(Reprise)과 커튼 콜(Curtain Call): 대부분 변주로 이루어지는 반복(Reprise)은 극적 상황의 변화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극적 순간에 나온다. 반복이 수반되는 커튼 콜은 공연이 모두 끝난 뒤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며 관객들의 환호에 답하는 의미에서 극중의 중요 아리아나 합창곡 등을 다시 부르거나 편집하여 메들리로 보여주는 피날레이다.

이번에 출간된 시집 '아직도 못다 부른 노래'는 고희(古稀)기념 시집이자 '서늘 하늘의 눈부신 노을의 노래'라고 하는 게 좋은 대담 일 것이다. 문단 27년의 중진담 게 무게 있는 250편의 시가 '고

독의 미학(美學)을 우리에게 소개 운영하고 있다.

육필시집(肉筆詩集)의 손맛을 느껴 보고픈 신인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김창중 본지 지문위원 고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 고장이 되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이장(移葬)시 발견 되어 화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어 재미있었다. 장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후 조건의 인도나 종교적 풍속에 의한 민족적 특성도 장례에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미즈소니언 박물관' 지하에는 박물관을 건립한 영국인 부호 '스미즈소니언'과 박물관 건립 당시, 박물관 지하에서 발견된 미국 인디언 소녀의 시신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집트 파라오(왕)들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으며 유럽의 유명교회 지하 묘소에는 유명 승려나 명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은 비밀리에 등극 직후부터 평생을 만든 황릉에 묻혔으나 세계인의 불거리로 발견되어 13억의 중국인을 먹여 살린다. 내 고향 포천에는 왕족, 귀족, 부통령, 장관을 역임한 명사의 묘소들이 다수 있으나 토장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명한